



배당의 가치

1. 6월 분기배당

- 6월 분기배당 수취를 위해서는 금일까지 주식 매수 필요.
-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공시한 종목은 86개. 변동성 완화, 기관/외국인의 단기 배당부 수요 관점에서 Size, 커버리지 follow-up 종목에 주목.
- 당사 분기배당 추정 기준 배당수익률 상위종목: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쌍용C&E, LG유플러스

2Q 분기배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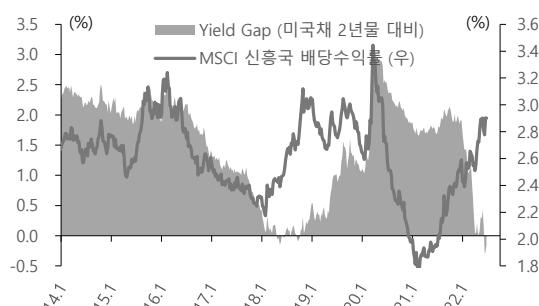
Code	종목	배당수익률
A086790	하나금융지주	1.76
A316140	우리금융지주	1.60
A003410	쌍용C&E	1.55
A032640	LG 유플러스	1.51
A017670	SK 텔레콤	1.48
A010950	S-Oil	1.44
A005490	POSCO 출판스	1.26
A055550	신한지주	1.04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금리 상승에 부합하는 배당의 수준

- S&P500 기준 배당수익률은 1.64%로 미국채 금리와의 일드갭 확대.
- 신흥국 지수 배당수익률은 미국채 금리 대비 -0.29%p 하회. 18년 주식자산 고평가, 선진국의 낮은 배당수익률과는 대조됨.
- 확연간배당 기준 기대수익률 상위종목 :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S-Oil, LX인터내셔널,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의 양호한 전망치 조정에도 주목 필요.

신흥국 지수 배당수익률과 미국채 금리와의 일드갭 확대.
18년 고평가, 선진국의 낮은 배당수익률과는 대조됨.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6월 분기 배당

전주 인플레이션 이슈가 진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리스크는 잔존해 있다. 시장 변동성 해지의 대안에서 배당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분기배당의 현금흐름 수취와 배당수익률이 높아진 종목의 바텀을 고민할 시기로 생각한다.

6월 결산법인의 기말배당, 이외 법인의 분기배당 수취를 위해서는 금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공시한 종목은 86개(우선주 9개 포함)로 확인된다.

배당 스타일 접근은 기대 배당수익률도 중요한 지표이지만,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대/중형주 접근이 합리적이다. 기관, 외국인의 단기 배당부 수요가 유입되는 점을 감안해 커버리지 follow-up이 유지되는 종목군으로 스크린 범위를 좁혔다.

대부분의 종목의 배당규모는 기업이 추후 결정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이전에 알 수 없다. 당사의 분기배당 추정과, 비유니버스 종목의 이전 배당지급을 참고해서 보면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쌍용C&E, LG유플러스 등이 2Q 배당수익률 상위종목으로 스크린된다.

[표1] 2Q 분기배당 예상 - 당사 분기 추정 기준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0.2Q	21.2Q	22.1Q	22.2Q(E)	
A086790	하나금융지주	500	700	-	700	1.76
A316140	우리금융지주	-	150	-	200	1.60
A003410	쌍용C&E	110	110	110	110	1.55
A032640	LG유플러스	-	200	-	200	1.51
A017670	SK텔레콤	200	500	830	800	1.48
A010950	S-Oil	-	1,000	-	1,500	1.44
A005490	POSCO홀딩스	500	4,000	4,000	3,000	1.26
A055550	신한지주	-	300	400	400	1.04
A105560	KB금융	-	750	500	500	1.02
A034730	SK	1,000	1,500	-	1,500	0.68
A005930	삼성전자	354	361	361	361	0.61

A005380	현대차	-	1,000	-	1,000	0.55
A000660	SK 하이닉스	-	-	300	-	-
A175330	JB 금융지주	-	-	-	-	-

[표2] 2Q 분기배당 검토 공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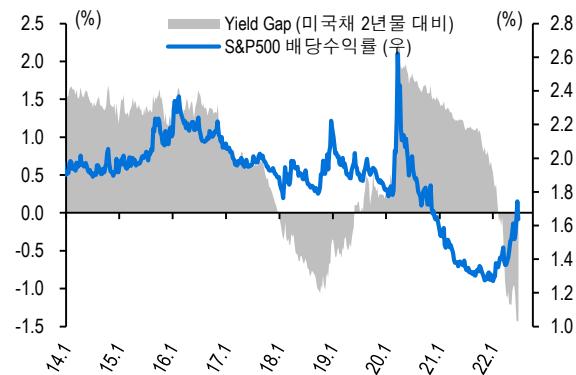
Code	종목	DPS				배당수익률
		20.2Q	21.2Q	22.1Q	22.2Q (E)	
A214320	이노션	-	450	-	-	0.96
A018880	한온시스템	68	90	90	-	0.90
A230360	에코마케팅	260	110	-	-	0.76
A166090	하나마티리얼즈	-	300	-	-	0.58
A012330	현대모비스	-	1000	-	-	0.49
A002380	KCC	700	1000	-	-	0.35
A097950	CJ 제일제당	-	-	1000	-	0.26
A267250	HD 현대	-	1850	-	-	-
A241560	두산밥캣	-	-	-	-	-
A056190	에스에프에이	-	-	-	-	-
A018670	SK 가스	-	-	-	-	-

2. 금리 상승에 부합하는 배당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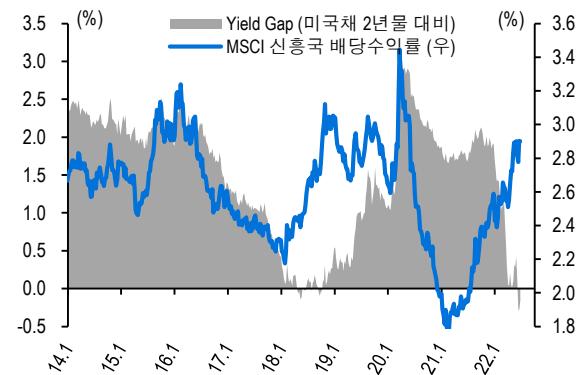
인플레이션이 유발한 시장금리 상승은 주식자산 보유의 기회비용 수준을 더 요구했다. S&P500 기준 배당수익률은 1.64%로 미국채 금리와의 일드캡은 -1.43%p까지 확대되었다. 이전 peak였던 18.10월 -1.06%p를 더 하회하는 수준이다.

신흥국 지수 배당수익률은 미국채 금리 대비 -0.29%p 하회하기도 했다. 18년 역전현상이 재현된 점이 조정에서는 불가피했던 배경으로 사료된다. 다만, 18년은 주식 자산의 고평가 측면이 있었고, 현 지수 레벨에서는 기대 배당수익률이 당시보다 높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선진국 지수의 기대 배당수익률이 이전 리스크 국면보다 낮은 점과 대비되는 점도 높게 평가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차트1] S&P500 기준 미국채 금리와의 일드갭은 확대. 주식자산 보유의 기회비용 수준을 더 요구.



[차트2] 신흥국 지수 배당수익률도 하회. 18년 주식 자산의 고평가, 선진국의 낮은 기대 배당수익률과는 대조됨.



양 지수의 일드갭 격차의 트리거는 미국채 금리 상승이다. 단기채 금리만으로도 3.1%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현 금리 상황에서, 배당주 기대수익률이 이를 크게 상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간 배당 기준, 기대수익률 상위종목은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이 스크린된다. 6월 컨센서스 조정이 미반영된 점, 이익 모멘텀이 부진한 섹터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S-Oil, LX인터넷내셔널,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의 전망치 조정은 양호한 흐름을 보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트3] 전망치 조정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조정 종목의 배당수익률은 높아진 상황

